

신문 강제로 뺏으면 절도죄?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제329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일>

코스피 1915.55 (+0.99)
코스닥 678.08 (+5.08)
금리(국고채 3년) 1.49 (−0.03)
환율(원·달러) 1180.70 (+4.70)

폰 판매점도 재벌 몫



차도녀? 털털녀!

차가운 도시 여자. '차도녀'는 차예련(30)의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개봉한 '퇴마: 무녀굴'에서는 편안한 매력을 지닌 방송국 PD 혜인을 연기했다. 촬영장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로 털털한 성격이다. 오는 10월에는 MBC 새 월화극 '화려한 유혹'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여성 정치인 캐릭터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장병호 기자 solanin@



통신 매장 증감 현황									
구분	직영점			판매점			대형할인점		
	14년 12월	15년 6월	증감률	14년 12월	15년 6월	증감률	14년 12월	15년 6월	증감률
SKT	3,870	4,159	7.5% ↑	12,418	11,623	6.4% ↓	1,660	1,539	7.3% ↓
KT	2,516	2,778	10.4% ↑	11,280	9,945	11.9% ↓	1,470	1,394	5.2% ↓
LGU+	2,038	2,077	2% ↑	8,591	7,184	16.4% ↓	1,526	1,710	12% ↑
계	8,424	9,014	7% ↑	32,289	28,752	11% ↓	4,656	4,643	0.3%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이통사 직영점 급증… 상반기만 590개 늘어
핵심상권일수록 심해… 영세 판매업자 몰락

공룡기업인 이동통신3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직영점을 늘리면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동네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어났다.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11%)개나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나 증가했다.

이 같은 '직영점 증가, 판매점 감소' 현상은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상권에서 2013년 7월 기준으로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나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영세 판매점의 퇴출이 줄을 잇는 이유는 통신 3사의 직영점 중심 자금지원과 대리점과 판매점 간 불공정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통3사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영세상인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도록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영업망 확충과 직영 영역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금력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영세 판매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각 3300억원과 2370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했다.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운영해 투자금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판매대리점에 한해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협)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천 이통협 이사는 "직영점과 대리점·판매점 사이의 보조금 차등은 물론이고 직영점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단기 행사나 묶음 판매 행사 등 소비자 지원 행사를 하지만 대리점·판매점들에게 이런 행사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르기 위해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 한다"면서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판매점의 줄 폐업은 정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 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이라면서 "영세대리점과 판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연령 구성비를 보면 전체의 64%가 4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hinhan bank has donated the least, unlike what they have said they will bring about in the beginning

'따뜻한 금융' 만든다던 신한은행, 기부실적 '꼴찌'



조용병 신한은행장

It is revealed that Shinhan bank, one of the leading banks in Korea, has put the least effort in making a donation. Shinhan bank has said to increase the donation rate to boost the nation's economic growth this year.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 Shinhan bank has been lagging behind while other leading banks such as Kookmin, Hana, Woori and IBK has shown relatively higher contribution to the donation compared to that of Shinhan bank.

On the 1st of September, according to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ART, Shinhan bank has only donated about 1.2 billion, 28 million in the 2nd quarter whereas Woori bank has donated 15 times more which is approximately 18 billion, 65 million.

Moreover, Kookmin bank has donated about 5.4 billion, 13million, Hana bank 2.2 billion, 31million and 3.8 billion, 4 million for Industrial bank in the 2nd quarter.

Shamefully, Shinhan bank's first half of the year's donation amount, which is about 3.3 billion, 35 million, was the smallest among the five major banks in Korea.

'리딩뱅크' 신한은행이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기부금을 책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금융보국'의 창업 정신에 따라 '따뜻한 금융'을 실천 목표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 등 경쟁 금융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따뜻한 금융'이란 말이 무색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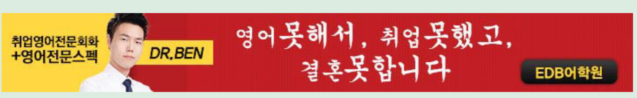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올해 2분기 기부한 금액은 12억2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이보다 15배 많은 180억6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국민은행은 54억1300만원, 하나은행은 22억3100만원, 기업은행은 38억4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상반기 기부금 실적은 신한은행(33억3500만원)이 시중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중국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0월 말~11월 초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남측이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8·25 합의'로 얻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회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여아 임신**에 낙태를 요구한 시아버지때문에 며느리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세월호 참사 배·보상금** 신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희생자 학생 유가족 중 40%만이 배상 신청에 나서 나머지 유가족들과 국가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40원에서 100원으로,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산림청은 2일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순천만정원의 야경. /연합뉴스

국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극해를 찾았다. 겉으로는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현장을 둘러보며 지구 온난화에 다시 경종을 울리겠다는 행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북극의 대규모 미개발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휴전선 포격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말하며 경종을 울렸다.

▲ **방콕 폭탄 테러**의 실행범이 검거돼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실행범은 중국 신장자치구 출신 위구르족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산업·경제



▲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7%) 오른 2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제과는 전일 대비 4000원(0.19%) 상승한 216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 시중 6대 은행들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7조9801억원으로 지난 7월의 잔액(321조5709억원)보다 6조4292억원 늘어났다.

▲ **코스피**가 개장초 1900선 이하로 미끄러졌다가 중국 증시의 반등 시도에 힘입어 되살아나 1910선을 지켰다.

▲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아파트 매매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신도시와 지방의 분양시장은 청약경쟁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직영점을 늘리면서 영세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2일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지난해 12월 8424개에서 올해 6월 9014개로 590(7%)개 늘어난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11%)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기아자동차는 15일 출시 예정인 신형 **스포티지 2.0 디젤**의 사전계약을 2일 전국 영업점에서 시작했다. 가격(6단 자동변속기 기준, 트렌디는 수동변속기 기준)은 △트렌디 2169만~2199만원 △프레스티지 2508만~2538만원 △노블레스 2591만~2621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832만~2862만원이다.

▲ **이마트** 매장 직원이 고객에 의해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마트 측이 피해 직원에게 병가조치도 취하지 않고 면담까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1일 가해자 A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대상**이 최근 백광산업으로부터 라이신 사업부분을 인수한데 이어 전분당과 팜유 등에 투자하며 소재사업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한반도 긴장 초래 행위 절대 반대"

한국 지지하며 북한 압박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희망
日언론 "한국, 중국에 접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전승절 참석차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관련해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와 적극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한국 측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지역 국가들 관계를 건강한 발전의 궤도로 유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지역 협력과 관련해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 시 주석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접목해 나가길 희망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의 접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심을 나타내 온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논평을 통해 "종전부터 그런 경향이었다. 어쨌든 제3국의 일이므로 정부로서 발언을 삼가고 싶다"며 논란을 피했다.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한중 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대중국 접근을 부각시켰다.

NHK는 "중국이 군비 증강과 해양 진출을 계속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 국가와 일본이 정상의 참석을 보류한 만큼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양상"이라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련의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원자가 돼 온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견제하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3일 열병식을 앞두고 베이징은 상점과 호텔들이 문을 닫고 차량 통행도 제한되면서 적막감이 돌아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전해진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北 "언행 삼가지 않으면 대결구도로 회귀"

朴 대통령 전승절 방중 겨냥
신중한 언행 요구 '으름장'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2일 남측이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8·25 합의'로 얻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방중 길에 오른 시점에 나왔다. 방중 기간 박 대통령의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동보도문(8·25 합의)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경우 북남관계는 기필코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가 문제 삼은 남측의 언행은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란 발언 △북한이 공동보도문에서 사과했다는 발언 △공동보도문을 남측 원칙론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발언 △남북관계 개선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이다.

국방위는 지뢰·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위기의 주범이 마치 우리인듯한 여론을 계속 확신시키는 온당치 못한 처사부터 일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보도문상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유감이라는 문구를 북조선식 사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 글자의 뜻과 단어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측의 자축 분위기에 대해서는 "북과 남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일은 없다"며 "우리는 이번 위기 수습과 공동보도문 채택의 성과가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강위력한 방위력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또 '원칙론'을 남북관계 '파국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과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망발까지 내뱉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를 위하는 일은 앞당길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손가락 까딱하면 한반도서 전쟁 난다"

카터 美국방, 대북 강경 발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국은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말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이날 매릴랜드주 포트미드에서 미군 장병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가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우리와 우리 동맹국인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NN은 최근 남북 간 포격 사태 이후 나온 카터 장관의 대북 발언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북한은 부싯돌과 같다"거나 "일주일여 전만 해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매일 북한 전쟁 도발에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1953년 이래로 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해 왔다"며 "지나간 과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CNN은 카터 장관의 발언과 함께 포격 사태 당시 미군 최고 수뇌부가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놀라 한반도 전쟁계획을 재검토했다는 이전 자사 보도를 다시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기간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전력을 심각하게 보고 내부적으로 한반도 전쟁계획을 두고 수차례 긴급 논의를 가지고, 한국군과도 논의했다. 미군 사령관들과 군사전략가 수준의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어떤 종류의 미군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 미군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한국에는 위기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북극해로 달려간 오바마… 왜?

겉으로는 기후변화 경고
속으론 미개발 자원 선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알래스카의 북극해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극해를 찾았다. 겉으로는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현장을 둘러보며 지구 온난화에 다시 경종을 울리겠다는 행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북극의 대규모 미개발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실제 백악관은 북극해 지역에 투입할 쇄빙선 건조를 위한 예산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알래스카주의 케나이 피오르드 국립공원을 찾아 '엑시트 빙하'를 둘러봤다. 빙하기의 명소지만 지구 온난화로 지난 수십년 간 빙하가 녹고 있는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이만큼 좋은 증거는 없을 것"이라며 "손자들이 반드시 알래스카의 빙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기후변화 문제에 매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날도 자신이 직접 출연한 알래스카의 기후변화 동영상을 백악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북극해를 찾은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2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극해 쇄빙선 건조계획에 들어갈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본격적인 쇄빙선 경쟁에 돌입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현재 러시아는 쇄빙선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1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7대 보유에 그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제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개발 원유의 13%, 천연 가스의 30%가량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운송로로 떠오르고 있다. 북극과 인접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2년의 유엔 해양법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제외하고 북극해에 대한 개별국가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송시우 기자 swsong@

국회 산자위 '신동빈·정용진' 증인채택 불발

재벌 총수·경제단체장 제외 전문 경영인만… 野 강력 항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벌 총수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신 회장은 산자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3곳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다. 산자위는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산자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 76명과 참고인 18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왼쪽), 박영선 당 재벌개혁특위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2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을 만나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 설치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의 서 회장은 방문판매원을 동의 없이 재배치하고 특약점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역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된 코오롱의 이 회장도 마찬가지다. 산자위는 대신 전문 경영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감장에 설 전문 경영인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박연배 코엑스몰 사장,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 박성수 이랜드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윤재민 LS전선 대표이사,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이강훈 오뚜기 대표이사 등이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이번에 여당에서 경제5단체장, 재벌 총수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어려웠다"며 "재벌 총수, 경제5단체장을 안 부르면서 김무성 대표는 재벌의 황제경영, 족벌세습경영 등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제가 많은 증인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 대형복합쇼핑몰 관련 증인이 대부분 채택 안 됐다"며 "롯데, 현대, 신세계의 책임 있는 사람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자꾸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모욕적이거나 망신적으로 질의한 적은 작년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재벌 총수, 경제5단체장 증인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저희가 재벌 총수를 불러 망신 줄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 명단에서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도 빠졌다.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고정식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포함됐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백골연금' 판치는 국민연금

공단, 전체의 1.4%만 조사 전수조사 안 해 실체 몰라 사망 숨기고 15년간 받기도

이미 죽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죽은 지 13년, 15년 넘는 사례도 있다. 무덤에서 시신이 백골이 되고도 남을 세월이다.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 전수조사 대신 전체 수급자의 1.4%를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서는데 조사 때마다 10년 이상의 '백골연금'이 적발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4만9061명 중 사망자 30명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억2000만원가량이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30건 중 5건 이상 10년 미만 부정수급한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30건 중에는 13년 이상된 경우도 있었다. 인천이 주소지인 이모씨의 경우 1998년 4월에 사망했지만 이후 13년 6개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부산이 주소지인 오모씨의 경우에는 1999년 9월 사망했지만 13년 동안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매년 전체의 1.4%를 선정해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때마다 백골연금 사례가 빠지지 않고 드러났다. 2012년 조사 때 5명(약 3900만원), 2013년 조사 때 17명(약 2억3000만원), 2014년 조사 때 8명(약 5200만원) 등이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대규모의 백골연금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

공단은 2014년까지 44명의 인원이 1인당 1100여명씩 담당하고 있었다. 올해 8명이 충원됐지만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 상황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5년2개월간 숨기고 1억7000만원의 보훈 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수급자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공단은 담당자를 추가로 확충해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김무성 "재벌 개혁해야 4대 개혁 성공"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후진적 지배구조 근절 앞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들의 황제 경영과 족벌 세습 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재벌 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에 대해 "옳은 주장"이라면서도 "오늘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그(재벌개혁) 부분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병형 기자

천정배 '신당 창당' 임박… 문재인 다시 러브콜

野 분열 조짐… 文, 통합 강조

호남신당설의 주인공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일 신당 창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야권이 들썩이며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신당이 왜 필요하고 비전과 가치가 뭔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10월) 재보선 범위를 매우 축소해버려서 기본적으로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내 친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추석전 탈당을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탈당이 현실화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나 특정 세력을 반대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영입 대상에 대해 "공천 탈락이 염려돼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분들은 '노생큐'라고 하고 싶다. 함께 할 사람은 혁신성이나 헌신성, 개혁성이 중요하다. 법조인뿐 아니라 혁신 경제를 이끌 기업가나 청년지도자 등이 두루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문 대표는 전날 광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그때(4·29재보선) 천 의원을 크게 끌어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 의원, 정동영 전 장관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 기자

청년이 70대 노인 물건 빼앗아가면 절도죄?

‘메트로 신문 강탈’ 이마트 직원들
檢, 절도죄 적용 약식기소·기소유예

지난 4월초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근처에서 70대 신문 배포 도우미를 폭행하고 메트로신문을 뭉치채 빼앗아 달아난 신세계그룹 이마트 홍보팀 직원 최모씨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동료 정모씨가 최씨의 범행을 도와 준 것을 밝혀내고 절도방조 혐의를 인정했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임길섭 검사가 담당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2일 "건장한 청년이 70대 노인한테서 신문 뭉치를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는 게 담당 변호사 등의 의견이다. 검찰항고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최씨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걸 전제하는데, 같은 강압적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검찰이 신세계 직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가벼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이 없는 강도죄 대신 벌금형이 있는 절도죄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최씨의 폭행으로) 배포도우미는 넘어지지도 아니한 바, 피의자 최씨가 배포도우미를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 만으로는 강도죄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강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정씨를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최씨가 절취한 신문은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 15부 정도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직장 선배인 최씨가 신문을 가지고 가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지시에 따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판매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은 일상용품 같은 물건은 강제로 빼앗아 달아나도 기껏해야 절도죄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된다는 것인데, 범죄 예방과 소탕이 임무인 검찰의 논리치고는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배포도우미 최모(73)씨는 사건 직후 어깨 통증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치 14일의 진단을 받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통원치료까지 받았는데, 가해자인 신세계 직원들은 치료비 보상은 커녕 공식적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사건 발생이후 5개월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결국 재벌기업 직원들에게 면죄부만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봉평은 메밀꽃 천지 메밀꽃 축제로 더 잘 알려진 '제17회 평창 효석문화제'의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축제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에 메밀꽃이 활짝 펴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봉평은 100만㎡가 넘는 메밀밭에 하얀 메밀꽃이 온통 흐드러지게 펴 장관을 이룬다. 축제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구파발 의경 총기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

안전장치 해제이유 등 따져야

'과실이냐, 고의냐'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 사건이 2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정황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인 박모(54·구속)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박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의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 아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죄질에 따라 '고의>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과실'로 혐의를 적용한다.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여겼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셈이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 기관은 정황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서는 ▲사망 가능성 용인 여부 ▲안전장치 해제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 등 사건 전후를 아우른 심층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경위가 박세원(21) 상경을 살인 할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박 경위가 사건 당일 오발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총구를 가슴에 겨눴다는 점에서 사망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적용 공방은 처벌 수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판을 거치면 처벌수위는 좀 더 낮아진다.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업무 시간에 발생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를 빼버리면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은 더 낮아진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이 무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한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피의자(박 경위)가 사망 발생은 예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례상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박 경위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논란이 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을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달 상고심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연미란 기자

'마약투약' 배우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4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강남의 한 모텔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세월호 유족 40% 배상신청… 법정공방 불가피

거부 유가족, 이달 중순 국가상대 소송 제기할 듯

세월호 참사 배·보상금 신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희생자 학생 유가족 중 40%만이 배상신청에 나서 나머지 유가족들과 국가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세월호 유가족 측에 따르면 정부 배상금을 거부한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9월 중순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 5000만원도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왔기때문에 (9월 중순 제기할 예정) 국가배상 인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특성상 얼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실구조로 비난을 샀던 해경 123정은 김경일 경위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설명회가 1일 안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참석자가 적어 썰렁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합뉴스

그러나 관할 책임자인 서해지방해경청장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총 책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당시 세월호를 실제 지휘한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검찰 수사, 감사도 없는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배·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돼버려 용납할 수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잘못한 사람들, 잘못된 관료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를 꼭 묻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배·보상 설명회는 유가족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맥주병 100원↑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40원에서 100원으로,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김서이 기자



영천 화학물질 유출 사고 소방 특수구조대원이 2일 오후 화학물질이 유출된 경북 영천시의 한 공장에서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뉴비전·미래전략 설명회 및 실천 다짐대회 모습.

서울지역본부 '2025 뉴 비전' 실천 다짐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의 미래상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뉴 비전'과 '미래전략'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Bottom-Up 방식의 직원 의견수렴과 학계·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자문과 외부 컨설팅을 거쳐 1일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공단의 새로운 미래상인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 구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운영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 실현 등 2025 미래전략의 5대 전략목표를 세웠다. 이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기 위해 미래전략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미래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대법 "양도소득세 안 낸 주식에 세금, 적법"

"과세 미루고 주식 증여… 혜택 줄 필요 없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주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강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6억7700만원을 부과하는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는 강 회장에게 주식 286만주를 줬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강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관련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의 경우)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지배관계도 없어지므로 더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이 공익법인에 증여됐다고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신동빈, 순환출자 해소 겸냥 제과 지분 매입

제과,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 180만원대→210만원대
지배구조 변환 핵심 '롯데쇼핑·호텔롯데' 합병 가능성↑



국내 증시가 대내외 악재 속에 고전하는 가운데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 내홍과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이들 주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순환출자 해소에 직접 나서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도 지배구조 개편에 기대를 내비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7%) 오른 2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4일 종가기준 23만500원을 기록한 이후 7일만에 24% 이상 상승했다.

롯데쇼핑 주가는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불거진 지난 7월 말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깜짝 반등해 25만8000원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2분기 어닝쇼크와 반(反)롯데 정서 확산에 지난달 10일 20만4000원으로 마감,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제과 주가도 롯데쇼핑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2일 롯데제과는 전일 대비 4000원(0.19%) 상승한 216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25일 종가기준 184만9000원을 기록한 이후 6일동안 17% 넘게 올랐다.

마찬가지로 롯데제과도 지난 7월말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199만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지난달 6일 176만7000원까지 떨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한 바 있다.

◆ 오너 지분매입, 지배구조 변화 본격 시동

롯데그룹은 한때 '불매운동'이 거론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내놓자 주가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호텔롯데가 상장될 때 시가총액을 13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면세점 영업가치 7조5000여억원과 투자자산가치 5조5000여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 회장은 지난달 28일 약 357억원의 사재를 털어 롯데건설로부터 롯데제과 주식 1.3%(1만9000주)를 전격 매입했다. 이로써 416개에 달하던 그룹 순환출자 고리는 276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롯데제과가 롯데쇼핑 7.9%, 롯데칠성 19.3%, 롯데푸드 9.3%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진원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영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호텔과 롯데월드 등의 부동산가치 5조9000억원을 추가 산정할 경우 기업가치는 더욱 높아진다"며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롯데리아 등 계열사 상장에 의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있고,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및 지분을 보유한 롯데제과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매입에 이어 일본롯데와의 협력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속화되면서 사업가치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롯데제과 주주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해소나 산업군별 정리 과정에서 계열사 간 지분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롯데제과는 오너 일가가 최근까지 직접 투자한 핵심 회사로서 손해가 가장 작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올 새내기株 수익률 '양호'

평균 주가 상승률 21.11%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들이 대체로 양호한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60사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21.11%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8사(재상장 2사 제외)는 지난달 말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평균 13.8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규상장 8사 가운데 3개사가 공모가 대비 상승했고, 5개사는 하락했다. SK D&D가 공모가 대비 120.77% 올랐고, 토니모리(46.88%), 경보제약(23.00%) 등이 올랐다. 반면 AJ네트웍스(-2.33%), NS쇼핑(-8.09%), 이노션(-14.41%), 미래에셋생명(-24.00%), 세화아이엠씨(-30.6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52사(재상장 6사 제외, 이전상장 2사 포함)는 공모가 대비 평균 22.22% 상승했다.

신규상장 52사 중 45사는 공모가 대비 상승했고, 7개사는 하락했다. 이중 지난 7월 22일 상장한 펩트론이 237.50%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흥국에프엔비(155.50%), 제노포커스(135.9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싸이맥스(-37.42%)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신규상장한 60사 가운데 일반기업은 29사, 기업인수합병 목적의 스팩(SPAC)은 총 31사다. 일반기업 29사는 공모가 대비 평균 29.18% 올랐다. 신규상장 스팩 31사는 공모가 대비 평균 13.56% 상승했다. 스팩은 31개 모두 공모가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익 기자

우리·농협선물 통합 'NH선물' 공식 출범

농협금융지주 금융계열사인 NH선물이 지난 1일 오후 4시 NH투자증권 본사 4층 강당에서 통합선물사 출범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NH선물(구 우리선물)과 NH농협선물의 통합선물사인 'NH선물'은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김병욱 대표이사를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출범식에는 이경섭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욱 대표이사는 출범사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한 수익극대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농협그룹의 시너지 창출 등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NH선물은 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한 지난해 4월 이후 1년5개월만에 출범했으며, 자산규모 6411억원, 자본 1116억원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보배 기자



2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증시·환율 현황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00선이 붕괴된 채 출발했다가 중국 증시의 반등 시도에 힘입어 0.99포인트(0.05%) 오른 1,915.22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中 증시부양책에 '숨통'… 1910선 턱걸이

中, 1000억 위안 출자 정책에
0.99p 오른 1915.22로 장마감

코스피가 개장초 1900선 이하로 미끄러졌다가 중국 증시의 반등 시도에 힘입어 되살아나 1910선을 지켰다.

코스피는 2일 전날보다 0.99포인트(0.05%) 오른 1915.2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증시의 폭락 소식과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28.09포인트(1.47%) 내린 1886.14로 출발했다.

코스피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다가 중국 증시가 4%대 폭락세에서 벗어나 장중 반등하는데 성공하자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 당국은 이날 50개 증권사가 1000억위안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양책을 다시 내놨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유가 폭락 등 세계 경제 전반에 퍼진 불안감으로 말리암아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간신히 전날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63억원 어치를 내다 팔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개인도 302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652억원 어치를 사들여 지수를 떠받쳤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운송장비(2.57%), 통신(1.81%), 섬유·의복(1.56%), 의료정밀(1.01%), 은행(0.88%) 등은 상승한 반면 전기가스(-1.61%), 철강·금속(-1.49%), 종이·목재(-0.82%), 화학(-0.81%)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과 하락이 교차됐다.

현대차가 8월 미국 시장 판매호조 소식에 3.41% 오른 것을 비롯해 현대모비스(1.97%), 기아차(3.23%) 등 '자동차 3인방'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46%), 제일모직(2.06%) 등도 올랐다.

반면 한국전력(-1.75%), SK하이닉스(-0.15%), 아모레퍼시픽(-0.41%) 등은 내렸다.

코스닥시장은 사흘만에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5.08포인트(0.75%) 오른 678.02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3.34포인트(1.98%) 내린 659.60에 출발해 등락을 반복하다 장 후반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각각 410억원과 265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9원 오른 1180.7원으로 마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 달 새 6조원 증가

국민·신한·우리 등 6대 은행 지난달 잔액 327조9801억원 2010년 이후 증가폭 '최대'



시중 은행들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7조9801억원이다.

이는 지난 7월의 잔액(321조5709억원)보다 6조4292억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10년 이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8월(4조652억원)보다 무려 39.6%나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세난과 맞물려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보다 0.55% 상승했다.

지난 2003년 8월에 전월 대비 1.19%나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3.35%나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2.43%)의 1.4배에 달했다.

내년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계산과 대출실적을 높이려는 은행들의 영업전략이 맞물린 것도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 9곳의 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를 강조하고 절판 마케팅이나 과도한 대출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8월의 주택담보대출금 증가 규모는 2013년 4435억원, 2012년 1조6980억원, 2011년 1조795억원으로 2조원을 넘지 않았다.

또 지난 2010년 8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전월보다 6630억원이 줄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을에는 통상적으로 여름보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량 추이에 비춰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세가 다소 꺾일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metroseoul.co.kr

잠자는 달러, 환전 없이 바로 투자한다

신한금융투자
연 3.7% 'USD ELS' 공모

신한금융투자는 연 3.7%의 수익을 추구,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USD ELS를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USD ELS 11529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의 3년만기 상품으로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3%(6개월,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3.7%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원금과 수익금(11.1%)이 상환되며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영식 OTC부장은 "달러 ELS 상품은 달러 보유고객이 원화로 환전하는 불편함 없이 그대로 ELS 청약에 사용할 수 있어 달러로 투자할 곳을 찾아 증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B와 ELS 상품을 오는 4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따라 원금보존형상품은 저위험(4등급), 원금비보장형 상품은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USD 1000달러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과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묵혀놓은 채권 찾아가세요"

KB국민은행
만기경과 미상환 800억 수준 이달 한달 간 상환 캠페인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한달 동안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 금액은 약 8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채권들이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과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김보배 기자

어떤 기기로 접속하든 한눈에 '쏙'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개편
금융권 첫 '반응형 웹' 적용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캡처.

IBK기업은행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홈페이지 접속 기기에 맞게 화면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웹 기술'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어떤 채널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PC로 접속한 홈페이지와 동일한 콘텐츠 환경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찾기 쉽도록 구성하면서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IBK상품트리'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 다국어 홈페이지(영어, 중국어, 베트남, 인도네시아어 등 4개 사이트) 내 IR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해외투자자 등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으로 고객이 어떤 채널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혼동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분석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KEB하나은행, 실시간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美·亞 등 8개국 대상 '1Q 글로벌 CMS' 출시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인 '1Q 글로벌 CM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글로벌자금관리 서비스와 달리 다른 은행의 거래현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통화별 자금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 금융과 무역금융에 강점이 있던 구(舊)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재무정보 일원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해외진출 기업이 많은 미국과 아시아 등 8개국 27개 은행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보배 기자

분양시장, 청약경쟁률 신기록 행진

광교·동탄2·미사강변 등 신도시, 역대 최고치 기록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아파트 매매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신도시와 지방의 분양시장은 청약경쟁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 1순위 청약에 들어간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B1)'는 평균 52.4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광교에서 분양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특히 지난 7월에 1순위 청약에만 무려 7만여명이 몰려 평균 38.9대 1을 기록한 '광교 중흥S-클래스'의 기록도 갈아치웠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청약경쟁률 신기록이 깨졌다. 지난 7월21일에 청약을 진행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3차'는 14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전에는 지난 3월에 청약했던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6.0'이 1순위 평균 62.85대 1이 최고 기록이었다.

미사강변도시에서도 신기록이 나왔다. 지난 7월에 청약한 '미사강변더샵 센트럴포레'는 1순위에서 평균 28.69대 1, 최고 61.0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미사강변도시의 최고 기록은 지난 4월에 분양한 '미사강변리버뷰자이(평균 23.88대 1)'였다.

부산과 울산지역에서도 청약경쟁률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에 '대연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3㎡A타입은 1순위에서 무려 16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지난 4월에 청약을 진행한 '부산광안더샵(84㎡B, 1141대 1)'의 기록을 깬 것이다.

또 지난달에 '복산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256.56대 1을 기록하며 지난 4월 '울산약사더샵(176.34대 1)'의 기록을 갱신했다.

평택지역도 5년 만에 1순위 마감단지가 속속 나왔다.

지난 7월에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2블록(3.84대 1)'과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1블록(3.56대 1)'에 이어 지난달에는 '힐스테이트평택1차(1.95대)'가 1순위에서 마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오랜만에 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4월 '운정신도시 롯데캐슬파크타운1차'는 1·2순위 청약결과1040가구 모집에 총 1783명이 청약을 접수(1.71대 1)했다. 지난 2009년 '한빛마을 5단지 캐슬&칸타빌(1.55대 1)'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실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단지가 많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롯데건설은 이달에 파주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운정 롯데캐슬파크타운 2차'를 공급한다.

반도건설은 다음달에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 Ac-03블록에 서'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를 분양할 예정이고 우미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C2블록에서 '평택소사벌지구 우미린 2차'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도 다음달에 부산 해운대구 중1동에서 '해운대 엘시티 더샵'을 공급한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metroseoul.co.kr



지난달 22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개관한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임대+분양' 패키지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

대우건설 컨소시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있었던 동탄2지구 A5·A6 블록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지구는 지난 6월부터 2차례에 걸친 사업자 공모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65%, 계룡건설산업 20%, 대우조선해양건설 15%)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A5블록에는 분양주택 913호가 계획돼 있고 A6블록에는 국민·영구임대 95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패키지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건설사업자로 나선다.

LH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장기공공임대 주택사업 손실분을 분양수익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면서 LH의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12월에 분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롯데건설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

롯데건설이 오는 4일 경남 창원시 합성1구역을 재개발한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11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100㎡로 구성된 1천184가구의 대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 50가구 ▲84㎡A 274가구 ▲84㎡B 359가구 ▲100㎡ 4가구로 총 687가구다.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창원·마산을 아우르는 직주근접 주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사화협동화단지와 가깝고 자동차로 마산자유무역지역까지 10분, 창원국가산업단지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71-8번지 일대에 마련된다.

롯데건설은 오는 7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한 뒤 9일에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6일 발표되며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구자익 기자

'유승한내들 센트럴' 견본주택 내일 오픈

유승종합건설

다산신도시 첫 민간 아파트

유승종합건설은 오는 4일 다산신도시의 첫 민간 아파트인 '유승한내들 센트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유승한내들 센트럴은 지하 1층~지상 29층짜리 5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중소형 아파트단지다.

전용면적별로는 74㎡ 85가구와 84㎡A 441가구, 84㎡B 116가구 등 총 642가구로 구성된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혁신평면으로 설계된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설계돼 있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동간 거리도 최대 130m에 달한다.

실용적인 4베이 구조로 개방감도 탁월하다. 주부의 작업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방직출입 발코니가 설계됐다.

다양하고 넉넉한 수납공간과 주방 펜트리 등이 들어선다. 84㎡B 주택형에는 6.5㎡에 달하는 대형드레스룸이 계획돼 있다.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센트럴 조감도. /유승종합건설 제공

다산진건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 신도시의 인프라와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와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어 주거편의성이 뛰어나다. 왕숙천과 수변공원, 중앙공원, 선형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기도 좋다.

게다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진건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들어선다. 진건역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청 2청사 맞은편에 마련된다. 오는 8일에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시작되고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이고 계약은 21일~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구자익 기자

호반건설, 하반기 230명 채용

신입 100명 경력 130명

호반건설이 2일부터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100명과 경력직 130명 등 230명 규모다.

앞서 호반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200여명을 새로 채용했다. 올해 채용 규모가 총 430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신입 채용 규모를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 했다는 게 호반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호반건설은 건설업계 퇴직자를 채용해 정년 이후까지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관제'도 도입했다.

입사지원은 오는 13일까지 호반건설 채용사이트(recruit.ihoba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형 스포티지’ 사전계약

기아차, 5년 만에 4세대 모델 선봬… 2169만원 부터

기아자동차는 15일 출시 예정인 신형 스포티지 2.0 디젤의 사전계약을 2일 전국 영업점에서 시작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신형 스포티지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이다.

기아차가 새롭게 개발한 R2.0E-VGT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86마력(ps), 최대토크 41.0kg·m의 힘을 낸다.

2.0 디젤에 고효율 터보차저를 적용해 실용 주행영역의 응답성과 동력성능을 개선하고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공력 성능을 개선하고 공회전 제한장치(ISG)를 4륜구동(4WD) 모델을 제외한 전 트림에 기본 장착했다.

14.4km/ℓ의 공인연비(자동변속기, 18인치 타이어 기준)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신형 스포티지 2.0 디젤은 총 4개 트림이다.

가격(6단 자동변속기 기준, 트렌디는 수동변속기 기준)은 ▲트렌디 2169만~2199만원 ▲프레스티지 2508만~2538만원 ▲노블레스 2591만~2621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832만~2862만원이다.

기아차 측은 "신형 스포티지는 국내 대표 준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서 디자인, 안전성, 편의성,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상품가치를 추구했다"며 "이번에 사전계약을 시작한 2.0 디젤 모델은 물론 경제성을 갖춰 오는 10월 중 선보일 1.7 디젤 모델 또한 준중형 SUV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에서 ix35 경찰차가 출고되고 있다.

현대차 ‘투싼ix’ 체코 경찰차로 선정

경찰청에 총 150대 공급
판매실적·고객만족도 2위

현대자동차의 ix35(국내명 투싼ix) 모델이 체코 경찰차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딜러점에서 ix35 경찰차 인도식을 열었다.

현대차는 이달 총 150대의 ix35를 체코 경찰청에 공급한다.

현대차가 공급하는 특장 ix35 경찰차는 가솔린 2.0 GD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168마력(ps)의 힘을 낸다.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했고 ▲경광등 ▲압축 공기로 강한 경고음을 낼 수 있는 에어혼 ▲경찰 전용 라디오와 통신장비 등을 설치했다.

현대차는 체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판매실적과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토종 브랜드인 스코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ix35와 신형 투싼을 생산하고 있는 체코 공장은 3년마다 선정하는 ‘체코 국가 품질상’의 최우수상을 2011년과 2014년 2회 연속 수상해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쌍용차, 신형 렉스턴 W·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유로6 만족 파워트레인 적용
벤츠 7단 변속기 최초 탑재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2일 신형 렉스턴 W와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했다.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편의 사양을 장착한 모델이다.

쌍용차에 따르면 렉스턴 W와 코란도 투리스모에는 e-XDi 220 LET 2.2 디젤 엔진과 벤츠 7단 자동변속기가 조합을 이룬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채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에 적용된다. 빠르고 정확한 변속과 고급스러운 주행품질이 특징이다.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LET 2.2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78마력(14.8%↑) ▲최대토크 40.8kg·m(11.2%↑)로 기존 모델에 비해 성능이 향상됐다.

LET(Low-End Torque) 콘셉트에 기반해 개발돼 1400~2800rpm의 최대토크 구간을 실현하면서 출발과 추월가속성능이 좋다.

벤츠 7단 자동변속기를 국내 레저차량(RV) 모델 최초로 적용해 우수한 변속품질을 구현하고 NVH(진동·소음)를 줄였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서스펜션 튜닝으로 승차감을 개선했다.

각 모델의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렉스턴 W 12.0km/ℓ, 코란도 투리스모 11.6km/ℓ(각각 2WD A/T) 수준이다.

두 모델 모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정전식 터치 방식의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저속 주행과 주차 시 안전성을 높여 주는 전방 세이프티 카메라를 신규 적용했다.

렉스턴 W의 판매가격은 2818만~3876만원이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9인승 2899만~3354만원 ▲11인승 2866만~3329만원이다. /이정필 기자

렉스턴 W(왼쪽)와 코란도 투리스모.



쉐보레, 개소세 인하에 파격할인

한국지엠
일반 모델도 현금할인 혜택



한국지엠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차종별 현금할인을 실시한다.

이달 쉐보레의 유로5 디젤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할 경우 캡티바 344만원, 말리부 디젤 304만원, 크루즈 디젤 261만원, 2015년형 올란도 디젤 231만원의 현금할인 혜택이 있다.

일반 모델의 경우에도 개소세 인하와 추가 현금할인 혜택을 포함할 경우 차종별로 알페온 최대 322만원, 2015년형 크루즈 가솔린 최대 218만원, 말리부 가솔린 최대 216만원, 아베오 최대 156만원, 2015년형 트랙스 가솔린 최대 142만원 등의 현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정필 기자

지엠코리아, 캐딜락 CTS 추석연휴 시승 이벤트



지엠코리아(대표 장재준)가 캐딜락 CTS를 추석 연휴 기간 시승할 수 있는 고객 이벤트를 벌인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3일부터 15일까지 CTS 마이크로사이트(www.allnewcts.co.kr)와 캐딜락 홈페이지(www.cadillac.co.kr)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간단한 추석 연휴 드라이브 계획을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은 26일부터 29일까지 CTS를 탈 수 있다.

만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21일 CTS 마이크로사이트와 캐딜락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정필 기자

BMW, 520d M 스페셜 에디션 출시

BMW코리아(대표 김효준)는 520d 모델에 특별한 옵션을 추가한 520d M 에어로다이내믹을 2일 출시했다.

가격은 기존 520d와 상시 사륜구동 xDrive 시스템이 적용된 520d xDrive, 두 가지 모델과 동일하다.

M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와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턴스, 서라운드뷰, 18인치 휠 등 편의사양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

엔진은 기존의 1955cc 직렬 4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엔진이다.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8kg·m로 동일하다.



BMW 520d M 에어로다이내믹 스페셜 에디션.

520d와 520d xDrive M 에어로다이내믹의 가격은 각각 6330만원과 673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정필 기자

'통합 삼성물산' 초일류 기업 향해 첫 발

공식 출범식… 최치훈 사장 "균형있는 사업 구축"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홀에서 삼성물산 공식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통합 삼성물산이 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삼성물산 공식 출범식에는 최치훈 건설부문 사장, 윤주화 패션부문 사장, 김신 상사부문 사장, 김봉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 등 4개 사업부문 CEO와 4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최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합병을 통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바이오를 포함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초일류 기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 모두 한 방향으로 혼신의 힘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는 한편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출범식에 앞서 가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과 이사 업무 위촉 등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와 주주와의 소통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CSR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CSR위원회는 김봉영 사장과 사외이사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출범식 직후 최 사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업해 시너지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기 계신 세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오는 4일 합병 등기 절차 진행 후 14일 신주를 교부하고 15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신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의료용 로봇 '모닝워크' 국립재활원 보급

현대중공업, 서울아산병원과 공동개발

현대중공업이 서울아산병원과 공동 개발한 의료용로봇 '모닝워크'가 재활전문 국립의료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설치됐다.

2일 사측에 따르면 모닝워크는 다양한 질병과 사고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보행재활로봇이다.

독창성을 인정받아 국립재활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 선정됐다.

국립재활원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전국 병원으로 확대 공급될 예정이다.

모닝워크는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환자의 훈련준비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장비보다 같은 시간을 운용했을 때 2배 이상의 재활환자를 도울 수 있다.

기존 보행재활로봇은 외골격로봇과 러닝머신을 조합한 형태다. 때문에 환자에게 추가 장비를 장착해야 해 준비에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모닝워크는 기존 장비와는 달리 계단과 경사 보행훈련 등을 구현할 수 있어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재활훈련이 가능하다.

미국 헬스케어 전문 조사기관인 윈터그린리서치에 따르면 재활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글로벌 매출 기준 1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정성현 현대중공업 의료기계담당 상무는 "이번 보행재활로봇 외에도 현재 종양치료로봇과 정형외과수술로봇 등 제품군을 다양화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의료용 로봇 개발로 해외환자유치와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전자 옥외광고로 'IFA' 손님 맞이 삼성전자가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 개막을 앞두고 다채로운 옥외광고를 설치하며 손님맞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 기간 베를린의 관문인 테겔 베를린 국제공항을 비롯해 베를린의 주요명소인 포츠담 광장과 시티큐브 베를린 전시장 입구 등에 사물인터넷(IoT) 메시지, SUHD TV, 슬립센스, 셰프컬렉션, 세탁기, 갤럭시 S6 엣지+ 등의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IFA 2015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 제공

대우인터, 年 2억달러 규모 PTA 공급 MOU 체결

내년부터 인도라마벤쳐스에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김영상)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인도라마벤쳐스와 연간 2억달러 규모의 테레프탈산(PTA) 공급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도라마벤쳐스는 전세계 17개의 공장을 보유한 PET CHIP(생수병 원료) 세계 부동의 1위 제조업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해부터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페트(PET)의 주 원료인 PTA 제품을 전 세계 인도라마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MOU 체결로 내년부터 총 2억 달러 규모의 PTA 제품을 인도라마벤쳐스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동 제품의 대규모 판매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전세계 공급과잉인 PTA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PTA 공급뿐만 아니라 동 제품의 원료로 생산된 PET CHIP 구매를 병행해 양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숙면 돕는 IoT 기기 '슬립센스' IFA서 공개

삼성전자, 올해 출시 예정
수면 중 상태 체크·분석


삼성전자 모델이 '슬립센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오는 4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되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숙면을 도와주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슬립센스'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슬립센스'는 약 1㎝의 얇은 두께로 납작한 원형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아 두기만 하면 어떤 신체 접촉도 없이 수면 도중의 맥박, 호흡, 수면주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분석한다.

'슬립센스'에는 의료용 맥박 및 호흡 센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얼리센스'의 최첨단 센싱 기술이 적용됐다.

이렇게 감지된 사용자의 수면 패턴은 스마트폰의 '슬립센스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슬립센스'는 스마트 가전 제품과도 연동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에어컨은 '슬립센스'가 측정한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따라 최적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삼성 스마트 TV는 사용자가 TV를 시청하다 잠이 들면 저절로 전원이 꺼진다.

향후 IoT 전문 업체 스마트싱스와의 연계를 통해 삼성 제품 외에 조명과 커피메이커, 커튼 등 연동 가능한 제품은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만조로스 교수 연구팀과의 협업으로 각 사용자별 '슬립센스'를 통해 분석된 결과에 따라 수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 관점의 맞춤형 조언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 '슬립센스'는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 /임은정 기자


SOLCO.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수소샘
H2-Dispenser®
추석맞이 가족사랑 이벤트
'백세건강연구소'가 드리는
'대한민국 건강프로젝트'
100세 시대
100일 체험
분 한정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벤트는 9월 말까지만 진행됩니다.
백년건강 수소수가 답이야
H2
| 전속모델 |
가수 윤수현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수소샘
검색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2O)에서 산소(O2)와 수소(H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백금 | 티타늄 | 백금
백금 | 티타늄 | 백금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2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3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

SKT '차세대 플랫폼' 글로벌 공략 나선다

세계3대 IT전시회 IFA 참가
보일러·에어컨 등 스마트홈
UO펫핏 등 라이프웨어 선봬



1일 IFA 2015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의 메쎄 베를린 전시장 입구에서 SK텔레콤 모델들이 독일 전통 복장을 입고 UO스마트빔, UO펫핏, UO링키지 등 라이프웨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올해 처음으로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에 모두 참석하며 플랫폼 사업자로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5'에도 참가해 스마트홈·라이프웨어 등 차세대 플랫폼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IFA에서 153㎡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연결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편리·안전·에너지 절감을 모두 갖춘 스마트홈 플랫폼 ▲쇼핑 환경과 제품 체험을 돕는 '스마트 쇼퍼'·'스마트 쉘프' ▲라이프웨어 상품인 'UO 스마트빔', 'UO링키지', 'UO펫핏' 등을 선보인다.

IFA 스마트홈 전시장에선 보일러, 에어컨 등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제품들이 상황에 맞게 통합제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출모드를 누르면 외출 환경에 맞게 집안의 모든 기기가 대기 모드로 바뀌고, 귀가 모드를 누르면 원하는 온도에 맞게 자동으로 가동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도어락·제습기·보일러 등 개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제휴하고 있다. 최근에는 YPP, 정우건설 등 아파트 홈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와 건설사와의 제휴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이 스마트홈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중이다.

라이프웨어 가운데선 UO펫핏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UO 펫핏은 반려견의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 수면량을 체크해 건강 유지를 돕는 목걸이 형태의 스마트 앱세서리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라이프웨어 통합 브랜드인 '유나이티드 오브젝트(UO)'를 론칭하고, 'UO 스마트빔레이저', 'UO 링키지' 등 신제품을 잇달아 발표하며 라이프웨어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매장에서 바코드 스캐너로 물건을 스캔하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쇼핑 도우미 스마트 쇼퍼를 내놨다.

또 물건이 놓여진 선반에 구축된 3개 또는 6개의 LCD가 상호 연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영상을 재생하는 새로운 오프라인 광고 플랫폼 스마트 쉘프도 선보인다.

한편 IF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1930년 아인슈타인이 기조연설을 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다. IFA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열린다. 약 1500개의 업체가 참가해 첨단 IT 제품의 향연을 벌일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CJ헬로비전, 자녀안심 '헬로키즈매니저' 출시

위치 확인·긴급 호출 등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

CJ헬로비전은 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헬로키즈매니저'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자녀 위치 확인,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 SOS 호출, 자녀 휴대전화·PC 관리,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위치 확인은 자녀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으로 학교, 학원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면 아이가 해당 지점 도착 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낸다.

긴급 SOS 호출은 아이가 전화할 수 없는 다급한 순간 스마트폰 홈버튼을 5회 연속 누르면 자동으로 부모에게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자녀의 스마트폰·PC 이용 시간과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돼 아이의 무분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자녀의 휴대전화가 도난당하면 부모 스마트폰으로 잠금 설정을 해 타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월 4400원이다. 안드로이드 방식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헬로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故 김광석 미완성곡 다시 만들어진다

SKT '연결의 신곡발표' 론칭
대중·후배 음악가들 참여



2일 SK텔레콤이 개최하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연결의 신곡발표' 제작발표회에 (오른쪽부터)성시경, 박학기, 심현보, 정재일 등 대중 뮤지션들이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고(故) 김광석의 미완성 노래가 대중이 노랫말을 더하고, 후배 음악가들이 곡조를 보태 신곡으로 완성된다.

SK텔레콤은 김광석 노래를 매개로 한 기업 브랜드 캠페인 '연결의 신곡발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감성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며 일어나는 따뜻한 변화를 강조하는 기업 광고 '연결의 힘'의 두 번째 작업이다.

배우 정우를 내세워 사람들과의 연결만으로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연결의 무전여행'에 이어 연결의 힘이 지닌 가치를 대중과 다시 한번 교감하기 위해 내년에 20주기를 앞두고도 위안과 희망의 노래로 여전히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김광석 노래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중이 오는 8일 문을 여는 '연결의 신곡발표' 홈페이지에서 전곡 작사, 부분 작사, 한 줄 작사 등의 방식으로 김광석의 미완성 곡에 노랫말을 붙이면 후배 뮤지션들이 곡을 완성해 오는 10월 하순 아이리버의 음악문학 공간 '스트라디움' 쇼케이스를 매개로 신곡을 발표한다.

한편 SK텔레콤이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연결의 신곡발표' 제작발표회에는 가수 성시경, 박학기, 정재일, 심현보 등이 참석해 향후 진행될 캠페인 과정을 소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음악가들과 김광석 씨 유족은 완성곡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음원 유통수수료와 저작권료를 제외한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문경 기자

폭스바겐, 전국 전시장서 전차종 시승행사

폭스바겐코리아는 4~20일 전국 36개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패밀리세단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폭스바겐 세단 모델을 비롯한 전 차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시승 신청은 19일까지 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https://goo.gl/ecvLUw)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VW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 스타일러, 中 시장 본격 공략

북경·광주·심양 등서 출시

LG전자 의류관리기 스타일러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이번 주부터 북경, 광주, 심양, 중경 등 중국 주요 도시에 스타일러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미국에서도 이달 중 예약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내에 출시된 스타일러는 불과 100일만에 누적 판매량 1만2000대를 돌파한 바 있다.

LG전자는 국내에서의 성공체험을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달부터 중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전 로드쇼에 스타일러를 미리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약 판매를 앞둔 미국에서도 메리어트, 쉐라톤 등 고급 호텔에서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탈취 기능, 고급 건조 기능, 바지 칼주름 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가운데 80% 이상이 스타일러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타일러를 확산해 글로벌 의류관리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고객이 직원 폭행… 회사는 나몰라라

이마트, 피해사원 면담 거부 되레 휴무일까지 근무시켜

'E-CARE' 도입 등 직원보호 제도 홍보만

이마트(대표 김해성·이갑수)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마트 측이 피해 직원에게 병가조치도 취하지 않고 면담까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마트 노동조합(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에서 이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이모(52·여)씨가 고객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A씨는 한 차례 폭행 후 2차 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는 이씨가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은 봉투에 든 고구마와 여주가 계산됐는지 확인하고자 절차를 진행하자 자신을 의심한다며 수 차례 얼굴을 밀고 가격했다 . 당시 이 씨는 입술과 입 안쪽이 찢어졌다.



지난달 18일 오후6시 이마트 가양점에서 고객이 계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 고객은 자신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52세 계산원 이모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2차 폭행 시도까지 했다.

이마트 측은 폭행 고객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잠시 후 A씨는 다시 찾아와 고객센터에 이씨를 불러내라고 위협하며 2차 폭행을 시도했다.

사건 당일 이마트는 피해자 이씨를 조기 퇴근 시킨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행 사건 다음날부터 이씨를 정상 출근 시키고 휴무일까지 근무하게 했다.

이마트 노조 측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또 노조는 사건 발생 후 피해 계산원에 대한 병가조치와 가해 고객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트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이마트가 즉시 제대로 된 조치만 했다면 2차 폭행시도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마트는 사원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휴무일까지 근무를 시키는 상식이하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을 지켜본 다른 계산원들도 고객에게 폭행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14일 고객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사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초! 대응 실시' 보호프로그램 'E-CARE'를 도입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사원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 측은 9월 1일 가해자 A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이마트 노조 김성훈 조직국장은 "이마트 사측이 사원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사원 폭행에도 나 몰라라 방치한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동대문 '두타'에 면세점 들어서나

두산그룹, 면세점 특허 신청 지역관광·상권 활성화 기대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

두산그룹은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연말 특허가 종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별도의 면세법인을 설립해 두산 동대문 지역 쇼핑 명소인 두산타워(두타)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한다. 기존 두타 쇼핑몰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층을 활용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두타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동대문 지역 관광·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도쿄는 시부야, 롯본기, 신주쿠 등 차별화된 3, 4개 허브 관광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비슷한 규모로 형성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동에 한정돼 있다"며 "동대문 지역의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면세점 입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 지역은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면서 "면세점 유치를 통해 동대문 지역이 명동에 이은 서울의 제2의 허브 관광지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주변 상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제·지역발전 기여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면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12월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3곳)·부산(1곳) 면세점에 대해 새로 운영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이번 달 25일이다.

특허권 만료로 공개 입찰 대상으로 풀린 면세점은 ▲ 워커힐(SK네트웍스) 서울 면세점(특허 만료일 11월 16일) ▲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12월 31일) ▲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홈쇼핑, 해외 패션 브랜드 전쟁

수익성 높고 제재 없어 매출 신장율 최대 50%

홈쇼핑 업계가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해외 패션 브랜드를 대거 판매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라이선스 패션 브랜드 비중을 확대하면서 프리미엄 고객 확보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하반기에만 30여 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다. 이 가운데 해외 라이선스 패션 브랜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CJ오쇼핑은 최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완료한 뉴욕 라이프스타일 패션 브랜드 '베라 왕'을 비롯해 해외 고급 편집숍 중심으로 판매되던 영국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샬라얀'을 소개한다.

GS홈쇼핑(대표 허태수)도 해외 패션 라이선스 브랜드를 강화했다. GS홈쇼핑은 해외 패션 라이선스 브랜드 비중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약 30%로 15%포인트 늘렸다. 올해에는 리차드 차이, 안나수이진, 블라키, 마리엘라마리니, 로즈몬드, 브에뜨르 등을 론칭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상반기 기준으로 약 50% 신장했다.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올해 얼진, 몽타큐, 웜앤나우 등 해외 패션 라이선스 브랜드 비중을 30%까지 확대했다. 전체 패션 카테고리로는 비중이 17%에 달한다.

이처럼 홈쇼핑 업계가 해외 패션 브랜드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는 별도의 매장 유지비나 광고비를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대량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상길 기자


그래피티 미니백 만나보세요 2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덱케' 매장에서 직원들이 그래피티 미니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그래피티 미니백은 패턴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그린 상품 하나하나에 색다른 느낌을 준 감각적인 핸드백이다. 소가죽 재질에 가격은 68만5000원이다. /연합뉴스

롯데, 하반기 신입·인턴 1400명 신규채용

신입, 오늘부터 17일까지 접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3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950명과 동계 인턴 450명 등 총 1400명 규모다.

신입 공채는 3~17일까지, 동계 인턴은 11월 5~16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모집 분야는 식품·관광·서비스·유통·석유화학·건설·제조·금융 등 전 부분이다. 최종합격자는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 농협중앙회와 농산물 판매 시작

쿠팡(대표 김범석)은 농협중앙회와 손잡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우수 농수산물과 냉동식품 등을 9월부터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6월 농협중앙회와 쿠팡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쿠팡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은 현재 780 여 가지다. 양파·고추·사과·배 등의 채소와 제철과일을 기존 판매보다 평균 10~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쿠팡은 10월부터 소고기·돼지고기 등 정육식품과 냉장식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수를 늘릴 예정이다.

상품은 오후 11시까지 주문할 경우 '로켓배송'을 통해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국방 주방용품 기획전'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전국 140개 점포와 온라인쇼핑에서 '국방 주방용품 기획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웍(궁중팬)·파스타볼 등 인기 주방용품과 조리가전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대상 '실적부진' 만회하나

영업이익 전년비 23.7% 하락
같은 기간 경쟁사들은 호실적
라이신·전분당·팜유 등
소재 사업 신성장 동력 마련

대상(사장 명형섭)이 라이신, 전분당, 팜유 등 소재 사업을 강화하며 새판 짜기에 나섰다. 계속되는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은 올 2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줄어든 수치다. 매출액도 1% 늘어난 6468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쟁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5.4% 증가한 1918억원(CJ대한통운 제외)을 기록했다. 매출은 11.9% 늘어난 3조1650억원을 올렸다. 오뚜기의 영업이익도 345억원으로 전년비 29.0% 신장했다. 매출도 4377억원으로 3.5%로 증가했다.

대상의 성장세는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08년 1조3736억원에서 2012년 2조4797억원으로 매출이 4년 사이 80% 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2조5423억원, 2014년 2조5888억원으로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모습이다.

이에 대상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 최근 백광산업으로부터 라이신 사업부분을 인수한데 이어 전분당과 팜유 등에 투자하며 소재사업 강화에 나섰다.

대상은 지난 26일 중견 화학제조업체 백산광업의 라이신 사업부문을 1207억원에 인수했다. 라이신은 가축성장과 발육을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전 세계 라이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신 시장은 2020년에 6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이신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육류 수요가 늘고 있고 양돈농가가 대형화되면서 라이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대상은 라이신 부문 매출을 2017년 30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명형섭 대상 사장은 "2016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전분당과 바이오와 더불어 라이신을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 전분당 사업부에도 697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으로는 2017년 안에 현지에 전분당 공장을 설립하고 기존 미원 등 조미료 위주의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익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꾸부라야에 있는 대상의 팜오일 공장에서 팜유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대상은 2009년 11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PT. Sintang Raya를 인수하고 팜오일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3만5000톤으로 향후 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7만5000톤 규모까지 생산량을 늘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라이신 사업은 대상이 기존에 해오던 발효식품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영역이며 전분당, 팜유 등 사업 역시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사업은 제빵, 제과, 음료 등 모든 식품의 근간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시설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사업이지만 B2C(소비자와의 거래)가 아닌 실수요업체와의 B2B(기업체 간 거래) 위주라 시장 트렌드에 영향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코오롱스포츠, 하반기 키워드 '기능성 캐주얼'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대표 박동문)의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하반기 소재와 레이어링 아이템의 확장을 통해 캐주얼 요소를 강조한 '기능성 캐주얼'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코오롱스포츠는 한층 세련된 아웃도어 룩을 위해 컬러를 비롯한 소재와 실루엣에 캐주얼 요소를 더했다.



초경량 다운과 풀 오픈 가디건, 간절기 패딩 등의 미드 레이어링 아이템을 강화해 새로운 다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독자 개발한 프린트와 소재 기술로 내구성과 보온성 강화에도 힘썼다.

울산男·제주도女 '홍삼' 선호한다

KGC인삼公 지역별 분석

남성용 홍삼 제품은 울산, 여성용은 제주도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정관장에서 판매되는 홍삼 15개 제품의 매출을 지역별로 분석해 베스트 셀러를 선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년근 홍삼에 작약·대나무잎·참당귀 등을 사용해 중년여성을 겨냥한 제품인 '화애락본'은 제주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9주년' 아이파크百, 최대 반값 할인행사

HDC현대아이파크몰(대표 양창훈)은 4~20일까지 '아이파크백화점 개점 9주년 고객 사은행사'를 열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의류 매장에서는 '쥬크' 트렌치코트를 11만9000원, 'VOV' 재킷 11만원, '시슬리' 원피스 14만



9000원 등에 선보인다. 멀티캐주얼 매장에서는 '탑걸' 트렌치코트를 6만9000원, '숲' 카디건 2만9000원, '리바이스' 청바지 5만9000원 등에 내놓는다.

다림질 필요없는 '아이론프리 셔츠'

LF(대표 구본걸)는 자사의 브랜드 마에스트로에서 가을겨울시즌 세탁후 다림질이 필요 없는 '아이론프리(IRON-FREE) 셔츠'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마에스트로는 LF가 국내 독점 계약한 TAL사의 기능성 원단은 자체에 8번의 특수 스팀 압축 공정



을 거쳐 세탁 후에도 즉시 제품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기존 원단 후처리 가공 방식의 제품보다 구김방지 효과가 더 강력하다.

메르스 영향… 7월 온라인쇼핑 비중 15% 넘어

음식료품 거래액 36.4%↑
모바일 비중 44.6% 차지

7월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15%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7월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소매판매액은 30조143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5%증가했다.

메르스 공포에 빠져있던 6월과 비교해 호조세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메르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메르스 영향이 없던 4월·5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2.7%, 1.8%였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7750원으로 지난해 대비 21.2% 늘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4% 급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2조1320억원으로 63.9%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44.6%를 차지했다.

백화점은 2조132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4%늘었고 대형마트는 3조792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감소했다.

홈쇼핑과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이 포함된 무점포 소매판매액은 3조8290억원으로 9.8%늘었고 슈퍼마켓 판매액은 3조1610억원으로 3.0% 증가했다. /김성현 기자

"빈 용기 반환보증금 올리면 술값 10% 오른다"

주류산업협회 반발

한국주류산업협회가 환경부의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가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 소주·맥주 가격이 10% 인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2일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주·맥주의 출고가격 외에 소비자가 주류구매 후 빈병 반환 시에 지급을 목적으로 예치하는 빈용기보증금을 소주의 경우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류제조업체가 도·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도 소주 16원, 맥주 19원으로 모두 35원 올리기로 했다. /정은미 기자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양형 호텔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수익형 부동산들이 공실의 위험성과 직접 관리의 번거로움 등 투자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고 관리가 편한 분양형 호텔이 새로운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6000만원 투자로 세계적 호텔을 내 품에…

객실 개별등기 분양형 호텔
저금리 시대 투자처 '각광'



데이즈호텔 제주시티 내부. /데이즈호텔 제공

최근 한창 인기몰이중인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각 객실별로 소유할 수 있는 개별등기가 가능한 호텔이다.

분양 후 호텔 운영은 전문기업이 위탁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이 운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주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제주는 연간 1200만명, 2018년 1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제주공항과 국제여객 터미널이 10분 거리에 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면세점과 바오젠거리도 인접해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데이즈호텔은 뉴욕증시 시가총액 1위의 세계적 호텔 체인인 윈덤 그룹의 대표 브랜드다.

현재 전세계에 2000여개, 중국에만 125개 호텔이 운영중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호텔 브랜드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서귀포시 I, II와 명동에 이어 제주시에 4번째로 선보인다.

제주시 지방법원 맞은편 이도 2동에 들어서는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지하 2층~지상 10층 총 365실 규모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5.13㎡~50.91㎡의 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부대시설로 대형 연회장과 휘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등도 갖췄다. 호텔 바로 앞에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이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다.

객실당 분양가격은 약 1억6000만원대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60% 전액 무이자 등 초기 투자 부담금을 낮췄다.

약 6000만원대 소액 투자로 누구나 세계적인 특급호텔을 내 명의로 할 수 있다.

50% 대출을 기준으로 실투자 금액에 최초 1년간은 연 16% 수익을 확정 지급하고 이후 9년간은 최소 연 11%의 수익을 보장한다.

데이즈호텔 제주시티
분양후 전문기업 위탁 운영
첫 1년간 연 16% 확정 수익
이후 9년 연 11% 수익 보장

운영으로 얻은 잉여 수익분
실적따라 연 20% 추가 지급

더불어 호텔 운영을 통해 얻는 잉여 수익은 별도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연 20%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데이즈호텔 제주시티의 시행은 국제자산신탁이 직접 시행하고 신용등급 AAA인 대저건설이 책임준공한다. 운영사는 국내 최고의 호텔운영전문기업인 산하HM이 맡았다.

특히 분양형 호텔로는 이례적으로 제1금융으로부터 PF가 조성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계약자는 성·비수기 상관없이 연간 10일간 객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또한 첫 해에는 제주왕복항공권 2장을 특별 제공한다.

홍보관은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다.

문의 (02) 555-9994.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식습관·운동요령… 치매예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오는 9·16일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가 2일, 9일, 16일 3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양천구치매지원센터 3층 보건교육실에서 치매예방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치매예방과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려 양천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기여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주에 걸쳐 매주 주제를 달리한다.

첫째 주는 '치매 예방하기'란 주제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윤지영 교수가 치매의 원인과 증상, 관리를 통한 예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둘째 주는 '치매예방 운동습관'을 주제로 양천구치매지원센터 박종섭 작업치료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지기능 향상 훈련법을 소개한다.

셋째 주에는 '치매예방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홍경의 교수가 강의한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장 최경규 교수(사진·이대목동병원 신경과)는 "지역주민의 뇌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양천구민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 치매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치매예방 건강강좌는 지역주민, 환자·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양천구치매지원센터 (02)2698-8680~1

/최치선 기자 chisunti@

동국제약, 韓 유소년 축구 육성 앞장

국제대회서 후원팀 우승

한국유소년 축구 대표 '화랑'팀이 동국제약 마데카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2015 경주 국제유소년(U-12) 축구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뒀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화랑, 충무, 신라 3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동국제약이 체결한 '유소년 상비군(대표팀) 후원 협약'에 따라 '화랑'팀이 마데카솔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회에 임했다. '화랑'팀은 지난 27일 결승전에서 포르투갈 명문 축구단 '벤피카' 유소년팀과 연장전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우리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특히 마데카솔 유니폼을 입고 우승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 상처치료제로서 축구 꿈나무 육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치즈인더트랩’ 합류



배우 **이성경**이 tvN 새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 백인하 역으로 출연한다. 눈에 띄는 미모를 이용해 양다리, 세다리를 걸치는 것은 기본이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성격인 통제 불능 캐릭터로 변신한다.

‘유미의 방’ 종영 인사



배우 **손담비**가 시트콤 ‘유미의 방’ 종영 소감을 전했다. 손담비는 2일 소속사를 통해 “벌써 종영이라고 하니까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며 “앞으로 더 좋은 연기자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中 ‘K-뷰티쇼’ 참석



배우 **송재림**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K-뷰티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한국과 중국의 뷰티산업 및 문화를 함께 교류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현지에서 팬과 만나 토크쇼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생애 첫 심사위원 위촉



배우 **김옥빈**이 제9회 대단한 단편영화제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생애 첫 심사위원으로 나서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심사하겠다는 각오다. 영화제는 오는 10일 KT&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개막한다.





‘올해의 배우상’ 뽑아요

배우 **박중훈**과 **문소리**가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확정됐다. 재능 있는 후배 배우를 발굴, 격려하는 취지로 마련된 상이다. 두 배우는 영화제 폐막식에서 직접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연기의 맛, 더 느끼고 싶어요”

영화 ‘퇴마: 무녀굴’ **차예련**

개성 있는 필모그래피를 쌓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음 스크린에서 차예련(30)을 봤을 때 든 생각이다. 데뷔작 ‘여고괴담4-목소리’에 이어 ‘구타유발자들’로 이어진 행보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금세 빗나갔다. 차예련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대중적인 필모그래피를 쌓아갔다. 궁금했다. 차예련이 왜 예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말이다.



처음부터 배우가 될 생각은 없었다. 박현호라는 본명을 붙여준 부모님은 둘째 딸이 남자처럼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인형 놀이보다 미니카를 갖고 놀고 공놀이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언니처럼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싶었지만 수트 같은 옷을 더 많이 입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 같다.” 차예련이 어린 시절 많이 들은 말이었다.

덕분에 털털하고 편안한 성격이 됐다. 친구들도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차예련은 고등학교 시절 길거리 캐스팅으로 패션지 모델이 되면서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여고괴담4-목소리’에 출연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

‘구타유발자들’에서는 한석규, 이문식, 오달수 등 연기파 선배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예련의 꿈은 “오직 영화만 하는 배우”였다. 뚜렷한 취향을 지닌 배우로 색다른 필모그래피를 쌓고 싶었다. 하지만 몇 차례의 흥행 실패를 겪으면서 생각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흥행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작품 하다 보니 흥행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라마로 눈을 돌리게 됐고요.”

누군가는 아쉬운 타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예련에게는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실제로도 차예련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연기에 더욱 단단한 생각을 갖게 됐다. “데뷔 때만 해도 연기를 평생 직업으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눈앞에 있는 작품 하나만을 생각했죠. 반짝하고 보여주기 위한 연기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평생 연기를 할 생각으로 작품에 임해야 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드라마도 함께 하면서 연기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떤 작품이든 몰입해서 연기만 신경 쓰자고 생각하게 됐죠.”

영화 흥행 실패 속 더 단단해져
드라마까지 넘나들며 성장변화

미스터리 추적 방송국 PD 연기
차도녀? 털털한 모습 보여줄 것



지난달 20일 개봉한 ‘퇴마: 무녀굴’(감독 김휘)을 선택한 것도 이런 성장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차예련은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인 진명(김성균)과 함께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는 방송국 PD 혜인을 연기했다. 편안하고 현실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 속에서는 씩씩하고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털털한 매력도 느낄 수 있다. ‘차도녀’ 이미지로만 차예련을 기억하고 있다면 신선하게 느껴질 장면들이다.

오는 10월에는 MBC 새 월화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 여성 정치인으로 또 한 번 변신한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기를 해오면서 차예련은 배우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게 됐다. 지금 차예련이 바라는 것은 연기의 맛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그리고 평생 할 연기를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장보리’ 제작진의 ‘따뜻한’ 이야기

MBC 새 주말극 ‘내 딸, 금사월’… 엄마의 희생 초점

지난해 ‘왔다 장보리’로 주말극을 평정했던 김순옥 작가와 백호민 PD가 MBC 새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로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는 두 여자의 인생을 따라간다. 집안을 살리기 위해 잘못된 결혼을 선택했으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략으로 친정부모와 회사를 모두 잃게 되는 신득예(전인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복수심 때문에 버려져 보육원에서 지내야 했던 금사월(백진희)이 그 주인공이다.

줄거리와 등장인물 관계만 보면 전작과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2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백호민 PD는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백 PD는 “악녀가 나오는 것은 ‘왔다 장보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장보리와 금사월은 전혀 다른 캐릭터다. 장보리가 시골에서 갓 올라온 구수한 인물이라면 금사월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이라고 말했다.



배우 전인화(왼쪽)와 백진희가 2일 오후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어 “제목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엄마와 딸의 이야기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에게 자기 몸을 먹이로 주는 거미처럼 희생적인 엄마들의 자식 사랑이 핵심 주제다. 딸도 어느 순간 엄마가 된다. 그런 엄마와 딸의 관계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딸, 금사월’은 ‘여왕의 꽃’ 후속으로 오는 5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하희철 기자 hhc@


당신의 화장대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화장대를 부탁해
매주 목요일 밤 9시
패션앤
SUN DAY CREAM
t.cast
FASHIONN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거리의 음악 '힙합'의 진심 조명

힙합 그룹 N.W.A의 자전적 영화
80년대 후반 美 사회 부조리 담아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감독 F. 게리 그레이)은 거리에서 태어난 음악인 힙합에 대한 영화다. 1980년대 후반 등장해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힙합 그룹 N.W.A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겼다. 닥터 드레, 아이스 큐브, 이지-E 등 국내 힙합 팬에게도 익숙한 뮤지션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그 속에는 흑백 차별이 여전했던 미국 현대사의 단면도 담겨져 있다.

영화의 시작은 1986년의 미국 캘리포니아 컴튼이다. 이곳은 폭력과 마약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본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들은 아무 죄 없이도 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한다.

부조리한 세상은 10대들의 눈에도 마냥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지-E(제이슨 미첼), 닥터 드레(코리 호킨스), 아이스 큐브(오셔 잭슨 주니어)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음악이 곧 이들의 공통 분모다. DJ 옐라(닐 브라운 주니어), MC 렌(알디스 호지)이 가세하면서 이들은 '행동하는 흑인들'이라는 뜻의 그룹 N.W.A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영화 전반부는 흑백 차별이 여전하던 80년대 후반 N.W.A가 일으킨 사회·문화적 파장에 초점을 맞춘다. 폭력적인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사에 담은 N.W.A의 노래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큰 충격을 안긴다. 그 정점은 디트로이트 공연이다.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는 노래 '퍽 더 폴리스(F*ck Tha Police)'와 함께 벌어지는 폭동 장면은 80년대 후반 미국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성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영화 후반부는 계약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룹 해체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멤버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이들의 활동이 90년대 갱스터 랩의 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하게 보여준다. 힙합 팬이라면 영화 말미에 잠깐 등장하는 스눕 독과 투팍의 모습에 양손을 절로 들게 될 것이다.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으로 '이탈리안 잡' '모범시민' 등의 액션 영화를 연출했던 F. 게리 그레이 감독은 147분의 러닝타임 동안 자신의 장기를 살린 리드미컬한 연출을 보여준다. 힙합의 진심을 조명한 훌륭한 음악영화다. 청소년 관람불가. 9월 10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11년 공백기 극복의 여정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연예계 최강 애처가들이 뭉쳤다. 내로라 하는 애처가 윤민수·인교진·주영훈·노유민이 숨겨왔던 결혼 생활 뒷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노유민은 한달 용돈이 10만원이고 등본을 떼도 아내 이름이 위에 있다며 연상 아내에게 꽉 잡혀 살고 있음을 고백했다. 과거 아내의 미모에 첫 눈에 반한 뒤 말을 걸었지만 '애 딸린 유부녀'라고 하는 바람에 마음을 접었던 사연도 밝힌다.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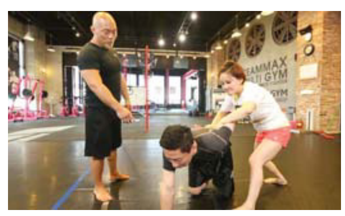
아나운서 김환은 결혼 7개월 차에 접어든 신입 사위로서 신혼 생활의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일어났던 기상천외한 '19금 말실수' 경험담도 고백한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안문숙과 김범수는 체력 단련 겸 호신술을 익히기 위해 이종격투기 수련에 나선다. 안문숙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야성미를 분출하며 스승 육진수에게 극찬을 받는다.



◆ 올리브TV '비법'

오후 9시

2800여개의 레시피를 가진 요리 한류스타가 스튜디오를 찾아 비법을 전수한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비법 등재 방식 덕분에 비법으로 인정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일 (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Story on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방송의 날 기획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11:00 KBS 미래포럼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여자를 울려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애인 있어요 (재)	06: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유자식상팔자 (재) 10:25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1: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나는 자연인이다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6:00 곽승준의 쿨까당 06:40 Let 미인 5 (재) 08:00 고성국의 빨간 의자 08:50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 10:10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 11: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미래포럼 (재) 14:00 KBS UHD특선 패셔너블 (재) 15:40 세계인 스페셜 (재) 15:50 오늘의 경제 16:00 KBS 미래포럼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2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슈퍼맨이돌아왔다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13:3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무한도전 스페셜 15:0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3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13:0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TV 동물농장 스페셜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연쇄쇼핑가족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5: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6:2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3:00 명단공개 14:00 현장토크쇼 택시 15:00 수요미식회 16:40 울지 않는 새 17:30 두번째 스무살 18:40 두번째 스무살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UHD 시대가 열린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2015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 23:00 KBS 뉴스라인 23:40 KBS 미래포럼 개막식 (재) 24:25 미래포럼 초청강연-창업경제의 비전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비타민 22:00 어셈블리 23:10 해피 투게더 24: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경찰청 사람들 2015 24:35 MBC 뉴스 24 24: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SBS 8 뉴스 19:5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2차 지역예선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3:00 썰전 24:20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알토란 (재) 21:50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23:00 슈퍼스타K7 24:20 문제적 남자 (재)	20:10 뇌섹시대 문제적 남자 (재) 21:40 코미디 빅리그 23:00 집밥 백선생 24:20 오 나의 귀신님 (재)

슈틸리케 원톱, 국내파냐 해외파냐

'신입생' 석현준-황의조, 주전 놓고 경합

슈틸리케호의 신입생인 석현준(24·비토리아)과 황의조(23·성남)가 주전 원톱 자리를 놓고 경합한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라오스와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치른다. 라오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7위에 머물러 있는 약팀이다. 지난달 끝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안컵에서 아시아 최강 면모를 재확인한 한국에게는 비교적 손쉬운 상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된 한국은 승리는 물론 대량 득점까지 노리고 있다.

슈틸리케호에 처음으로 승선한 석현준과 황의조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원톱 요원인 이정협(24·상주)이 불의의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두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면서 서로에 대한 경쟁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두 선수의 대결 구도는 해외파와 국내파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다.

석현준은 고등학교를 마친 2009년 곧바로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해 해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흐로닝언, 마리티무, 알아흘리 등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본인의 커리어를 모두 해외에서 보냈다. 지난 시즌부터는 포르투갈의 비토리아FC로 팀을 옮겨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적 첫해 10골을 터뜨린 뒤


석현준


황의조

올해에도 정규리그 2경기에서 3골을 넣는 기염을 토했다. 쾌조의 컨디션에 힘입어 슈틸리케의 부름을 받았다.

K리그 클래식 성남의 젊은 피 황의조는 풍생고와 연세대를 거쳐 2013년부터 성남FC의 유니폼을 입었다. 데뷔 시즌에는 28경기에서 4골을 넣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5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며 용병인 에두와 아드리아누에 이어 득점 랭킹 3위에 올랐다. 토종 공격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다. 황의조에게도 라오스전은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6월 동남아시아 2연전 예비명단에 포함됐지만 경기를 뛰지 못했기에 이번 경기에서 A매치 데뷔를 노린다.

이상협의 공백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 대신 두 원톱 자원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경쟁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의 활약 여부가 라오스전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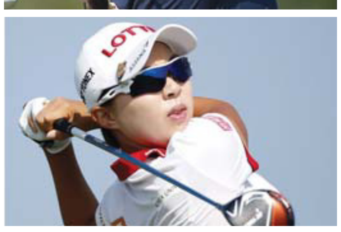
한국은 라오스와 그동안 세 차례 맞붙어 모두 이겼다. 가장 마지막 대결인 2000년 4월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김은중(36)과 설기현(36·이상 은퇴)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9-0 대승을 거뒀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김세영·김효주, LPGA '신인왕' 접전

남은 8개 대회서 명암 갈릴 듯





김세영(위)과 김효주.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김세영(22·미래에셋)과 김효주(20·롯데)가 신인왕을 놓고 접전에 들어갔다. 시즌 마지막 대회 성적에 따라 신인왕의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

김세영과 김효주의 신인왕 경쟁은 LPGA 투어 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다. 투어 최정상급 기량의 경쟁자가 같은 해 LPGA투어 무대에 뛰어든 탓에 고단한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세영이 신인왕 포인트 1104점으로 1048점을 받은 김효주에 겨우 한 발짝 앞서 있다. 시즌 내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이어왔지만 점수 차는 100점도 채 되지 않는다.

둘은 올해 투어 대회에서 3승을 합작했다. 김세영이 두번 우승했고 김효주가 한차례 정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우승을 포함해 톱10 입상을 김세영은 9차례, 김효주는 8차례 달성했다. 김세영은 상금랭킹 4위, 김효주는 11위에 올라 있다. 선수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평균타수 부문에서도 김효주가 4위, 김세영이 8위를 달리고 있다.

신인왕 포인트는 투어 대회 우승에 150점, 준우승 80점, 3위 75점, 4위 70점, 5위 65점 등 순위에 따라 부여한다. 한차례 대회에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상대를 멀찌감치 따돌리기 어렵다. 꾸준히 점수를 쌓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 남은 8개 대회에서 둘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부터 열리는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마스터스는 두 선수의 신인왕 경쟁에서 중요한 대회다. 신인왕 포인트가 다른 대회의 갑절이기 때문이다. /하희철 기자

강정호, 시즌 13호 홈런… 멀티히트 기록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사진)가 시즌 13호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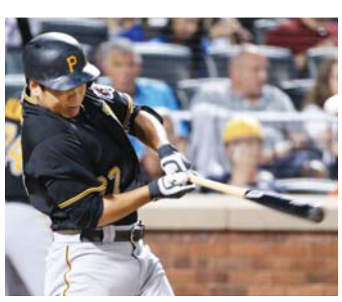
강정호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하나를 포함한 4타수 2안타를 치고 1타점 2득점을 올렸다.

피츠버그가 3-7로 뒤진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마지막 타석에서 들어선 강정호는 데이비드 고퍼스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시즌 13호 홈런이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한 지난달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이후 7경기 만에 재가동한 홈런포이기도 하다.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다시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8에서 0.290(369타수 107안타)으로 올랐다.

지난달 30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친 강정호는 31일 콜로라도전에 결장했다. 그러나 2경기 만에 다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정호의 활약에도 피츠버그는



4-7로 져 2연패했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텍사스가 8-6으로 승리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정현, 1회전 승… 韓선수 7년 만에 쾌거

US오픈테니스

2회전 강적 바브링카와 대결

정현(69위·삼성증권 후원)이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다.

정현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230만 달러·약 497억원) 남자단식 1회전에서 제임스 덕워스(95위·호주)를 3-0(6-3 6-1 6-2)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이날 승리로 랭킹 포인트 45점과 상금 6만8600달러(약 8000만원)를 확보했다.

한국 선수가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본선에서 이긴 것은 2008년 5월 이형택(39)이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요나스 비요크만(스웨덴)을 3-0(6-4 6-4 6-3)으로 꺾은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이형택은 세계 랭킹 52위였고 상대인 비요크만은 62위였다.

정현은 1세트 초반부터 서브게임을 따내며 6-3으로 기선을 잡았다. 기세가 오른 정현은 2세트는 불과 22분 만에 6-1로 마무리하며 덕워스를 코너로 몰았다. 덕워스의 서브 게임으로 시작된 3세트에서도 초반 게임스코어 2-0으로 달아나며 승세를 굳혀나갔다. 이날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고 실책 역시 1개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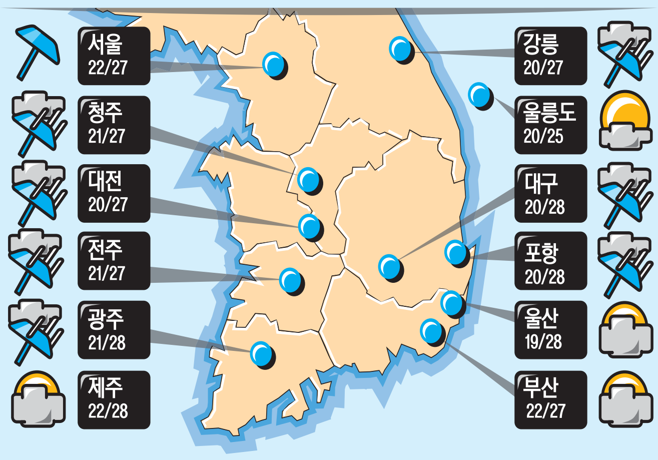
서브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덕워스는 서브 에이스 10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현 역시 10개로 뒤지지 않았다. 상대가 서브를 넣었을 때 득점 확률도 52%에 이르렀다. 첫 서브 성공 시 득점 확률에서도 78%를 기록해 61%에 그친 덕워스를 앞서며 완벽한 승리를 챙겼다.

메이저 첫승을 거둔 정현은 2회전에서 강적 스탄 바브링카(5위·스위스)와 맞붙게 됐다. 3일 애시 스타디움이나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 등 메인 코트에서 경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희철 기자

날씨

9/3 목 일출시각 06:03 일몰시각 18:5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생활 영어

I'm flat broke

A: Are you still playing that game?

B: Yeah, I just need to finish this raid and get my epic sword

A: Why don't you log off and join me for a drink?

B: I can't. I'm flat broke.

A: Maybe you'd have more money if you got off your ass and found a job.

B: I AM working! This sword is worth 500 bux!

A: IRL?

B: Yeah, so leave me alone while I work!

A: Looks like drinks are on you next time!

나 완전 거덜났어

A: 아직도 그 게임 하고 있냐?

B: 응, 그냥 이 레이드를 끝내고 에픽 스워드만 찾으면 돼.

A: 게임 그만하고 한잔 하러 나가자.

B: 안돼, 한 푼도 없어.

A: 너 당장 일어나서 직장 구하면 돈을 더 벌지 않을까.

B: 나 일하는 중이거든! 이 검은 500 달러나 돼!

A: 실제로?

B: 그래, 그니까 근무 중일 때 방해하지 마!

A: 담엔 네가 술 한턱 낼 모양이네!

* bux: bucks의 약어, 달러
* IRL: in real life의 인터넷 약자, 실제로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8		2			
		2				1		
	5		1	3				9
			2			7		
2			3	6	9			8
		3			8			
3				2	5		7	
		5				9		
			9		4	5		3

1		3		5	6			
7				9				4
5			7			3		
		1		2	5			
3								5
			1	7		8		
		6			2			7
9				4				8
			8	1		5		2

스도쿠 정답

1	6	7	8	9	2	3	4	5
9	3	2	4	5	6	1	8	7
8	5	4	1	3	7	6	2	9
5	9	8	2	4	1	7	3	6
2	7	1	3	6	9	4	5	8
6	4	3	5	7	8	2	9	1
3	1	9	6	2	5	8	7	4
4	8	5	7	1	3	9	6	2
7	2	6	9	8	4	5	1	3

1	4	3	2	5	6	7	8	9
7	2	8	3	9	1	6	5	4
5	6	9	7	8	4	3	2	1
6	8	1	4	2	5	9	7	3
3	7	4	9	6	8	2	1	5
2	9	5	1	7	3	8	4	6
8	1	6	5	3	2	4	9	7
9	5	2	6	4	7	1	3	8
4	3	7	8	1	9	5	6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부를 계속 할 지 직장을 다닐 지 고민입니다
2016년 재물운… 일하며 재정비한 뒤 공부하시길

2층집 여자 83년 2월 24일 양력 18시25분

Q 오래 전부터 선생님의 사주 칼럼을 봐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저도 제 고민을 상담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고 지금까지 다행히도 그 공부를 하면서 관련 일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일은 쉬고 공부만 하기로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부가 내게 맞는지, 안정적인 직장이 더 급한 게 아닐까 고민스럽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지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이 질풍노도를 어떻게 보내야 할 지요.

A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선택을 한다는 데 자기의 인생관과 직업과 배우자가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합니다.

작은 크든 그 선택을 통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맨 처음 조금만 각도가 달라진다면 도착하는 곳은 아주 생소한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목표를 정하고 집중을 해야겠지요.

현재의 선택은 먼 후일 행복과 불행의 시발점이므로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과 나름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자신의 사주와 운을 보고 심사숙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전답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니 총명하고 식록(食祿)이 풍족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계획보다는 시간이 걸려서 성과를 내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칠살(七殺)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어하여 매사에 망설이거나 추진력을 부족하게 하고 일말의 중단수를 예고합니다.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니 나름의 특별한 고집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 운과 재물 운이 상격(上格)으로 시험을 보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나 지난 2014년 2015년은 번뇌요, 2016년부터는 재물을 취하는 운세 이므로 학업보다는 돈을 버는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고민하다 시간 보내지 말고 직업을 가진 후에 공부를 하는 운세라면 그리하다가 한숨 돌린 후 재정비를 하십시오. 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靑山)이 아니라 인생평생교육(人生平生敎育)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온 공부가 있었고 지금까지 다행히도 그 공부를 하면서 관련 일을 병행해 왔으니 한 우물을 파서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전략으로 나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3일 (음 7월 2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60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72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84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소 **49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61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73년생**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위엄이 있고 리더십이 뛰어나 지도자격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세요. **62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4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86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63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되겠습니다. **75년생** 여자를 조심하세요. **87년생** 친구에게 언행을 조심하세요.

용 **52년생**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64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76년생**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88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뱀 **53년생** 돈에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65년생**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77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89년생**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 **54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66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78년생** 기분 좋은 날입니다. **9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세요.

양 **55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겠습니다. **67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79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 입니다. **91년생** 분에 넘치게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8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운입니다. **80년생** 돈을 좀 써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92년생**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 입니다.

닭 **57년생** 계획은 내일로 미루세요. **69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81년생** 전진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93년생**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개 **58년생** 언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70년생** 수단과 방법을 지금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82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94년생** 오늘만은 즐겁게 지내도록 하세요.

돼지 **59년생**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세요. **71년생** 소극적인 자세가 유리합니다. **83년생** 기분 좋은 하루로 생동하는 날입니다. **95년생**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방위사업 관련 공문서 위조하면 가중 처벌해야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국내 방위산업체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입찰자격 제한에도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군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표 위변조에 연루된 현대로템과 한화테크윈이 잇따라 공공기관 발주 거래에 대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체는 입찰 제한에 대해 여유롭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지부진하게 지난달까지 시간을 끌다가 입찰 자격 제한 제재를 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현대로템은 4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현대로템은 8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1651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5.2%에 해당한다.

현대로템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테크윈측도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현대로템 측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방위사업청은 비리에 연루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군 최고위층의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일컬어 '생계형 비리'로 표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방산비리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해왔다. 방산비리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질러지는 악질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제2, 3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고자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법에 정해진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과 관련해 뇌물죄,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규정하는 법이 규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방산비리 범죄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형량이 너무 낮아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자는 황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더 이상 방산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기대해본다.

통합 삼성물산, 저질러 놓고 보자?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통합 삼성물산이 목표로 내건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이란 목표가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다.

통합 삼성물산의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2일 출범식에서 "주주들에게 약속한 시너지 등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통합 삼성물산이 단기간에 이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설부문은 2014년 16조2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 상사는 13조6000억원에서 19조6000억원 달성을 내걸었다.

패션은 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레저와 식음은 2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매출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지지부진하고 중국 경기 불안정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양사의 바이오 산업부문 매출은 약 1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은 2020년까지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려 18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여기에 지난 1일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 후 첫 작품으로 IT를 접목한 웨어러블 제품을 선보였지만 실망스러웠다.

여성 핸드백에는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기능을 접목했으며 바이오 스마트 셔츠에는 심전도와 근전도 센서를 부착해 심박과 호흡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IT기업과 패션 업체들이 콜라보 상품으로 내놓은 것과 차별점을 찾기 쉽지 않다. 경쟁 업체에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 뭔가 조급함이 묻어났다.

삼성물산은 건설·상사·패션·식음, 레저·바이오 등 5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만큼 서두르기보다 급변하는 미래를 보다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때다.

인 사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안승철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전보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장 신성열 ▲경영지원실 정보관리처장 박찬탁 ▲KR연구원 설계기준처장 손병두 ▲호남본부 재산지원처장 오왕교 △부장급 전보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 노사협력부장 김영균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이사 김중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김태섭 연구위원 ▲김찬호 연구위원 △연구실장 전보 ▲금융경제연구실장 김찬호 선임연구위원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상무이사) 고윤희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반병희

◇연세대의료원 △의료원 ▲세브란스아카데미소장 김승민 ▲부소장 방승민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 김소윤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영태 △치과대학 ▲구강악안면방사선과학교실 주임교수 최성호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최영득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장 허지회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장 이관영 ▲기획예산처장 최동훈

◇건국대 ▲입학전형센터장 김진영 ▲대학원 부원장 고준석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조세영 ▲공학교육혁신 센터장 오기환 ▲국제학부 학부장 박재진

◇성결대학교 ▲교목실장 김국환 ▲사무처장 김재홍 ▲대외홍보처장 채진수 ▲종합인력개발처장 한종길 ▲인문대학장 김희선

◇영남이공대 ▲대외협력부총장 박만교 ▲도서관장 조용문 ▲평생교육원장 이택운 ▲토목건축학부장 조현경 ▲건축과 학과장 최영오 ▲사이버국방경찰계열장 김용현 ▲관광외식학부장 김충호 ▲관광계열장 권재일 ▲사회복지보육과 학과장 박세정 ▲박승철헤어·스킨케어과 학과장 김수창

社說

더 커지는 자영업자 비명소리

자영업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6명 중 5명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페를 비롯한 음식업의 폐업률은 93%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재벌기업의 음식업 분야 진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롯데 그룹의 롯데리아, CJ그룹의 CJ푸드빌 등이 이미 시장을 누비고 있는데다 이랜드 까지 끼어들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 유통사업에도 KT를 비롯한 통신대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손길을 뻗친다. 이 때문에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자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고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많은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와 자영업을 꾸린다. 그런데 그런 사업마저 또다시 재벌기업에 의해 침식당하니 자영업자들은 2중의 고통에 시달리는 셈이다. 게다가 재벌 점포가 진출한 지역에서는 임대료와 가격수준이 급격히 오르기 일쑤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또다른 부담을 준다. 재벌기업이 영세사업자들을 밀어내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그 자체로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인근의 유사점포를 몰락시킨 다음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골목상권의 영세사업자들을 파탄시키면서 이익을 내려는 것은 사실 기업가정신을 저버리는 일이다.

재벌기업의 사업을 하나하나 법으로 막기는 어렵다. 재벌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해외로 진출하거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영업자의 설 땅이 없어지면 민주적인 시장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러므로 재벌기업들은 자영업자 사업에 파고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곤란한 규제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급제동·가로막기… 보복운전 처벌은?

생활법률

2014년 10월 오후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놀란 B씨는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두 어린자녀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씨의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복운전은 크게 급제동·가로막기·밀어붙이기 등으로 분류한다. 급제동은 차량을 앞서 가거나 추월한 뒤에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행위이고, 가로막기는 앞차가 2개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유형의 보복운전이다. 밀어붙이기는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 오면서 피해차량을 중앙선쪽 혹은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보복운전의 유형 중 급제동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복운전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상 벌칙조항에 따른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흉기 협박죄로 판시했다. 폭처법에 따른 폭행 그리고 협박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기존 형법보다 형량이 크다.

실제로 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에 입각,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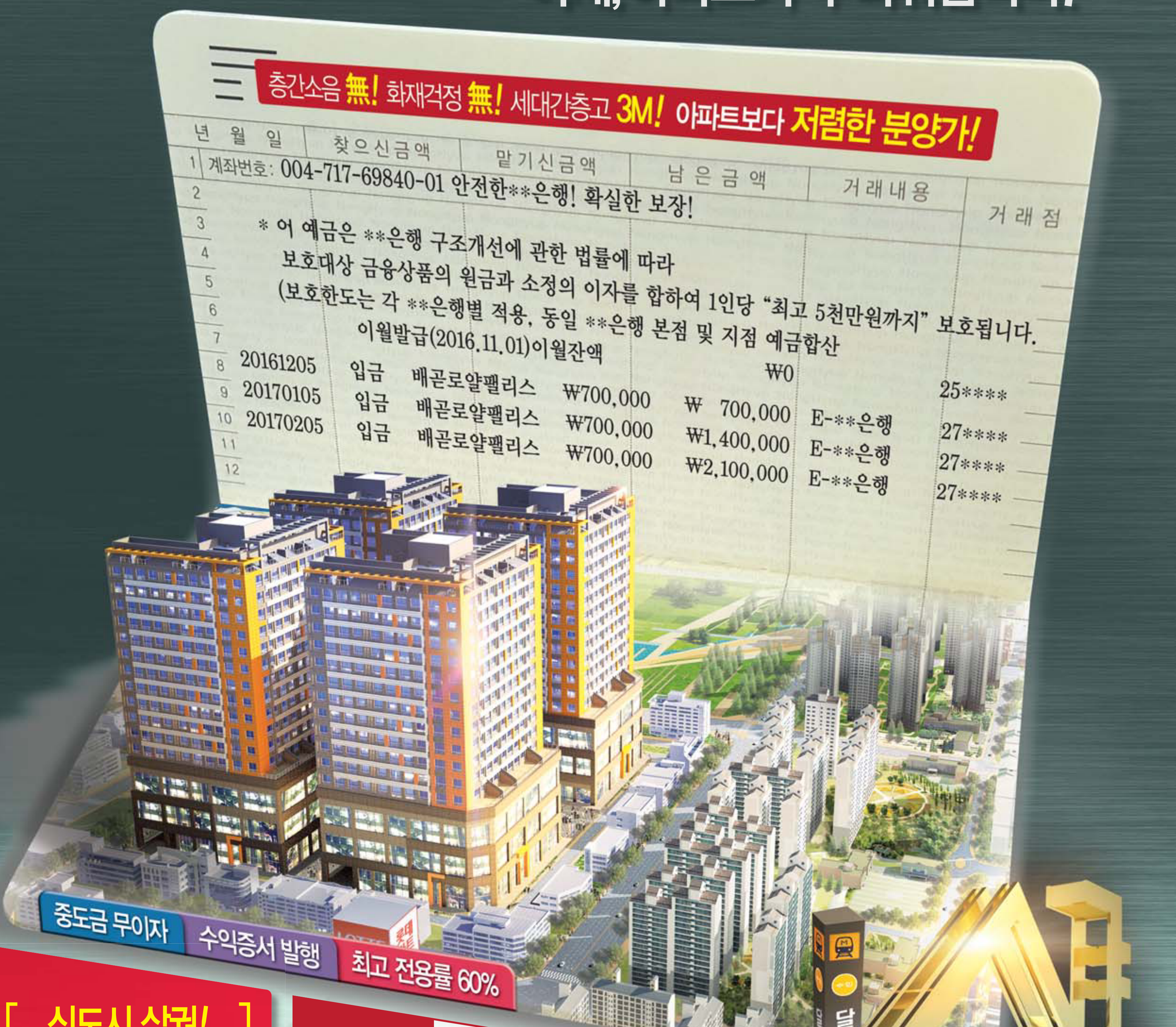
ROYAL PALACE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로얄팰리스에 3천만원 투자하면

月70만원이 통장에 팍팍!!

이제, 아파트가 부러워합니다!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 만족!
투자는 200% 만족!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 중도금 60% 무이자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문의전화

로얄팰리스 **배곧**

1644-6662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